

# 장성, 장산·안평리 재해위험 없앤다

### 행안부 공모 최종 선정...2025년까지 추진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등

장성군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포함 489억원을 확보해 서삼면 장산리와 장성읍 안평리 일대에서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서삼면 장산리와 장성읍 안평리는 저지대에 있어 태풍이나 호우 발생 때 상승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배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빗물이 원활히 배출되었지만, 노후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서삼천과 구암천 등이 범람해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대상 구간이 넓고 농경지 등의 구획이

오래 전에 지정된 터라, 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 개선사업이 불가피하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장성군은 올해 초 수차례 주민 회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계획'을 수립,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2.7km) ▲소하천 정비(3.77km) ▲배수펌프장 4개소 신설 ▲우수관로 정비(1.67km) 등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성읍 안평리-서삼

면 장산리 일대 138세대 345명의 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해진다. 부지 규모로는 시가지 10ha와 농경지 118ha가 재해 걱정을 덜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은 지역민과 군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낸 민관합치의 성과"라면서 "안평-장산리 주민들이 수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재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부지가 백수를 논산리 금정마을로 확정된 가운데 김준성 군수가 해당부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 영광 공립요양원, 백수읍에 들어선다

### 2023년 준공 목표...이용자 편의성 도모

영광군이 최근 공립요양원 신축부지가 백수를 논산리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23년 공립요양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은 노인 돌봄의 사회 요구 기조에 맞물려 요양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친화적 이미지 조성, 환자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백수읍 논산리 금정마을에 신축하는 공립요양원은 연면적 2,466㎡(2층) 건물 1개동 규모의 요양시설과 쉼터·주차장 등

로를 신설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정원 조성, 본관·쉼터·주차장 등의 최적화된 배치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 설계될 예정이다.

그동안 혐오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의 부정적 이미지와 주민반대로 신축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백수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희망으로 동학구권이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부모, 내 이웃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 생물의학연구소센터, 보건복지부 추진

## A형 간염백신 효능평가사업 수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학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이 추진중인 'A형 간염백신 효능평가 시험 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A형 간염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돼 무료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나, 2021년 현재까지 국산 제품이 개발된 바 없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A형 간염 백신 국산화에 필요한 백신 효능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 및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복지부 A형 간염 백신 효능평가 시험 사업은 생물의학연구소가 주관기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진메트릭스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협력한다.

이들은 A형 간염 백신 국산화에 필

요한 바이러스 항원 제조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A형 간염 백신 체액성, 세 포성, 방어 효능 평가 기술을 획득, 항원 원료와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품질 검증 기술 등을 갖게 됐다.

생물의학연구소센터는 2019-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 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A형 간염 백신의 주요 품질 시험법을 구축하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보, 효능평가시험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곽원재 센터장은 "이번 A형 간염 백신 효능평가기술 구축을 통해 완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A형 간염 백신 국내 개발이 가속화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한 국산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담양군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가졌다. /담양군 제공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체험

### '지오투레일' 행사

담양군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지역의 명소를 둘러보고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오투레일'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3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내년 진행될 재인증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유네스코는 2018년 4월 담양군 전 지역과 광주시, 화순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권을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 인증 기간은 4년으로

2022년 4월 16일까지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담양의 대표 명소인 죽녹원을 시작으로 예비지오투레일인 인당공방에서 접시만들기 체험, 기후변화체험관 탐방 및 지오빌리지인 도래수마을에서 도래수밥상(죽통밥, 대사리된장국)을 체험하며 무등산권의 자연을 즐기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오는 28일에는 용면 도래수마을에서 지오투레일이 펼쳐진다. 토론회에는 최형식 담양군수, 김경오 담양군의회의장, 강재원 도래수마을 대표, 허민 무등산권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담양=정일남 기자

## 장흥,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85% 넘어

장흥군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60%를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1차 접종은 13일 현재 기준 2만8,522명으로 18세 이상 인구 3만3,697명 대비 85%를 돌파해 군민 10명 중 8.5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보면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은 9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3만7,800명) 기준으로는 76%를 넘어 전국 평균 1차 접종률 64%와

전남 72%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시기를 놓친 미동의자 및 미 접종자에게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잔여 백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종수 군수는 "코로나 집단 면역 조기 달성, 건강하고 행복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최근 다시면 운봉리 백용저수지 일원에서 녹조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제공

##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백용저수지 녹조 방제 작업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김선일)가 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녹조 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다시면 운봉리 백용저수지 일원에서 녹조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녹조방제 작업은 녹조 제거 780kg을 희석해 살포선을 이용, 저수

지 상류부 수면에 뿌렸으며, 작업은 구멍조끼와 방제복을 입고 안전관리 수칙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나주지사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녹조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월 2회 이상 집중 예방을 실시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나주=조충권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 담양 대덕면, '행복나눔 꾸러미' 지원

담양 대덕면은 최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주)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및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행복나눔 꾸러미' 100상자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복지혜택의 범주를 벗어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

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했다.

행복나눔 꾸러미 상자에는 김치와 장아찌, 말반찬, 두유, 차 등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위주의 물품으로 꼼꼼하게 구성됐다.

김동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대덕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노안면 주민자치위, 사랑의 고구마 전달

나주시노안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양태)가 최근 사랑의 고구마 43박스를 관내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다.

사랑의 고구마는 지난 5월 중순 주민자치위원 소유 밭에 고구마 순을 심어 정성껏 가꾼 뒤 9월에 회원들이 참여해 수확한 것으로, 노안면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노양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구마 나눔 행사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를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함께 참여해 주신 자치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노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김장 전달에 이어 사랑의 쌀, 고구마 등을 전달하는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조충권 기자



### 한돈협회 영광군지부, 돼지고기 기탁

대한한돈협회 영광군지부(지부장 양동근)가 최근 한기위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통해 영광군에 57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했다.

대한한돈협회 영광군지부는 한돈인들의 권익보호 및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이웃 사랑 한돈 나눔행사'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기부된 돼지고기는 관

내 노인 맞춤 돌봄 285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동근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이번 추석을 쓸쓸히 맞이할 관내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 나눔행사를 열었다"며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돼지고기가 각 가정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